

第9回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제9회

백제문화국제심포지움

日時 2016年12月17日(土) 9:30~16:50

会場 帝塚山大学 奈良・東生駒キャンパス1号館

主催：帝塚山大学 奈良教育大学 公州大学校(韓国)

共催：東京学芸大学

後援：奈良県教育委員会 奈良市教育委員会 奈良新聞社

第9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9:00-9:30	受付		
9:30-9:40	開会挨拶	帝塚山大学学長	岩井洋
9:40-10:40	講演		
	慶州月城からみた百済と新羅、そして日本との瓦交流	国立慶州文化財研究所主務官	梁淙鉉
10:40-11:40	研究発表		
	古代百済・日本の航路と加唐島	公州大学校教授	尹龍赫
	日本の古代山城研究の諸問題	公州大学校教授	徐程錫
13:10-13:20	挨拶	奈良教育大学学長	加藤久雄
13:20-16:40	研究発表		
	百済文化・日本文化の融合 —心の価値観を遺跡・瓦にみる—	帝塚山大学考古学研究所 特別研究員	甲斐弓子
	3Dデータを用いた百済期瓦の観察	奈良教育大学大学院生	中屋菜緒
	武蔵国分寺の朝鮮半島系瓦	東京学芸大学大学院生	矢内雅之
	日本における古墳と朝鮮半島との関係 —獣面人身十二支像を中心に—	奈良教育大学大学院生	横井まどか
	百済の鋤に関する考察	京都大学研究生	李相元
	大和片岡地域南部における百済文化の様相	香芝市教育委員会生涯学習課 文化財係学芸員	西垣遼
16:40-16:50	閉会挨拶	公州大学校総長	金熙洙

제 9 회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

9:00- 9:30	접수	
9:30- 9:40	개회인사	테쓰카야마대학 학장 이와이 히로시
9:40-10:40	강연	
	慶州 月城에서 본 百濟와 新羅, 그리고 日本의 기와교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무관 양종현
10:40-11:40	연구발표	
	古代 百濟-日本 航路와 加唐島	공주대학교 교수 윤용혁
	日本 古代山城 研究의 몇 問題	공주대학교 교수 서정석
13:10-13:20	인사	나라교육대학 학장 가토 히사오
13:20-16:40	연구발표	
	백제문화·일본문화의 융합 —마음의 가치관을 유적·기와에서 본다—	테쓰카야마대학 고고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가이 유미코
	3D 데이터를 이용한 백제기 기와 관찰	나라교육대학 대학원생 나카야 나오
	무사시 국분사의 한반도계 기와	동경학예대학 대학원생 야나이 마사유키
	일본의 고분과 한반도와의 관계 —수면인신 십이지상을 중심으로—	나라교육대학 대학원생 요코이 마도카
	百濟 살포에 對한 考察	교토대학 연구생 이상원
	야마토 가타오카 지역 남부에 있어서의 백제 문화의 양상	가시바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정 문화재계 학예원 니시가키 료
16:40-16:50	폐회인사	공주대학교 총장 김희수

「第9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って

帝塚山大学
学長 岩井 洋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は、2008年に第1回が開催され、このたび第9回を迎えることとなり、百済文化に関する様々な研究を通して、貴重な研究成果が発表されるとともに、韓国と日本の交流が深まってまいりました。

本シンポジウムは、韓国公州大学校と東京学芸大学の主催ではじまりましたが、第2回から奈良教育大学が参加し、今回、帝塚山大学が主催として加わることとなりました。毎年、韓国と日本で交互に本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てまいりましたが、第9回を迎える今年、帝塚山大学で開催する運びとなりました。

帝塚山大学と韓国の間には、学術的に深い関係があります。2004年に開設した附属博物館は、日本でも有数の瓦（とりわけ日韓中の古代瓦）のコレクションをもち、初代館長の故・森郁夫名誉教授は古代瓦研究の第一人者でありました。現館長の清水昭博教授も、前館長の遺志を継ぎ、日韓の古代瓦研究を深めています。このような学術的な背景から、帝塚山大学で本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すことを誠に光榮に存じます。

また本年、奈良の春日大社では、20年に一度、社殿の修築を行う「式年造替」の年にあたるとともに、奈良市は、日韓中の3か国が様々な文化プログラムを通して交流を深める国家プロジェクト「東アジア文化都市」の開催都市として、多様な文化プログラムを実施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記念的な年に、本シンポジウムが奈良で開催されることは、誠に意義深いことであります。

本シンポジウムの目的は、第1回より一貫して、「百済と日本の文化に関する研究交流を通じて、日韓関係の歴史的理解を深め、より確かな国際交流の絆を築いていく」ことでもあります。これまでの研究交流の蓄積をもとに、本シンポジウムを通じて、4大学の研究交流がさらに充実するとともに、未来にむけた日韓の相互理解の深化とさらなる友好親善の機会となりますことを祈念いたします。

「 제 9 회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 」 개최에 즈음하여

데쓰카야마대학 학장

이와이 히로시(岩井 洋)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은 2008년에 제 1 회가 개최되어 이번에 제 9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귀중한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교류도 심화되어 왔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 공주대학교와 도쿄학예대학의 주최로 시작되어 제 2 회때부터 나라교육대학이 참여하고 이번에 데쓰카야마대학도 주최자로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본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습니다만 제 9 회를 맞이하는 금년에 데쓰카야마대학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데쓰카야마대학과 한국은 학술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2004년에 설립한 부속 박물관은 일본에서도 유수의 기와 (특히 한중일 고대기와)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초대 관장으로 작고하신 모리 이쿠오 명예교수님은 고대기와 연구의 일인자였습니다. 현재 관장인 시미즈 아키히로 교수님도 전 관장의 유지를 이어 한일 고대기와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인 배경도 있어 데쓰카야마 대학이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나라의 가스가대사는 20년에 한번 신전을 수축하는 「식년조체」의 해에 해당하는데 나라시는 한일중 3 개국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를 심화시키는 국가프로젝트 「동아시아 문화 도시」의 개최도시로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념비적 해에 본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심포지엄의 목적은 제 1 회때부터 일관되게 「백제와 일본의 문화에 관한 연구 교류를 통해 한일관계의 역사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공고한 국제교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교류의 축적을 기반으로 본심포지엄을 통해 네 대학의 연구교류가 더욱 충실해지고 미래를 향한 한일 상호이해기 심화되어 한층 발전된 우호친선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第9回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の開催にあたって

奈良教育大学
学長 加藤久雄

百済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は、2008年10月31日に、韓国の公州大学校において、公州大学校と東京学芸大学の共催により、第1回が開催されました。その背景には、扶余の地で「古都扶余をめぐる日韓の文化交流」をテーマとした、百済歴史再現計画の展開があり、「百済文化を介した日韓文化の交流の可能性」を探ることが、このシンポジウムの原点だと言えます。

東京学芸大学の鷺山恭彦学長（当時）から本学の柳澤保徳学長（当時）に、「日本で開催する際には、百済ともご縁のある古都奈良の地で」というお話があり、第2回を2009年6月12日、13日に本学を会場として開催しました。この第2回で、「千数百年前に遡る日韓文化交流の歴史の歩みを辿りつつ、未来に向けた日韓文化交流の促進に貢献する。」との趣旨が確認されています。

以来、公州大学校、東京学芸大学、帝塚山大学、本学の百済文化研究者のご尽力で、第9回を迎えることとなりました。（第3回は2回ありました。）また、帝塚山大学の岩井洋学長のご理解とご支援のもと、今回初めて帝塚山大学での開催となりましたことに、本シンポジウムの発展を感じております。深くお礼申し上げます。

第9回までの開催地は以下のとおりです。

第1回	2008年10月31日	公州大学校
第2回	2009年6月12日・13日	奈良教育大学
第3回	2010年7月2日	東京学芸大学
第3回	2010年12月10日・11日	奈良教育大学
第4回	2011年10月6日	公州大学校
第5回	2012年12月15日	奈良教育大学
第6回	2013年10月5日	公州大学校
第7回	2014年12月6日	奈良教育大学
第8回	2015年11月14日	公州大学校
第9回	2016年12月17日	帝塚山大学

研究の面からは、百済とは結びつきのない私ですが、縁あって、第2回からこ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ております。公州に参りました時は、武寧王陵、公山城、国立公州博物館、そして、扶余に案内していただき、毎回、多くのこと

を学びます。「もう、ここは3回目。」ということになったりしますが、毎回、新しい学びがあります。また、仁川から公州に行き、シンポジウムの後、海印寺、慶州の仏国寺や石窟庵などを訪問し、釜山から帰国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その中で、公州にありながら、いつも行きそびれてしまうのが、パク・ドンヂン先生のパンソリ伝授館です。映画「ソピョンジェ」で、パンソリのことを知った私ですが、是非、訪れてみたい地です。日韓の理解と交流が、時代や場所を越え、ますます深まる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

最後になりましたが、本シンポジウム開催にあたり、ご尽力いただきました方々に深くお礼申し上げます。特に、第1回以来、予稿集の翻訳や当日の通訳、日韓の間に立っての調整を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金範洙先生には、改めてお礼申し上げます。

「제 9 회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의 개최에 즈음해서

나라교육대학 학장
가토 히사오(加藤久雄)

백제문화 국제심포지엄은 2008년 10월 31일 한국의 공주대학교에서 공주대학교와 동경학예대학의 공동주최에 의해 제 1 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부여 지역에서 「고도 부여를 둘러싼 한일 문화 교류」를 테마로 한 백제역사 재현 계획의 추진이 있었습니다. 「백제문화를 통한 한일문화의 교류의 가능성」을 고찰한 것이 본 심포지엄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경학예대학의 당시 와시야마 야스히코 학장님으로부터 본교의 야나기사와 야스노리 학장님(당시)에게 「일본에서 개최할 때에는 백제와도 인연이 있는 고도 나라의 땅에서」라는 말씀도 있어 제 2 회를 2009년 6월 12일과 13일에 본교를 대회장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두번의 대회로 「천수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일문화 교류의 역사의 자취를 더듬고 미래를 향한 한일 문화교류 촉진에 공헌한다.」라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공주대학교, 동경학예대학, 데쓰카야마대학, 본교의 백제문화 연구자들의 진력으로 제 9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제 3 회는 두번 개최됨) 또한 데쓰카야마대학의 이와이 히로시 학장님의 이해와 지원하에 이번에 처음으로 데쓰카야마대학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본심포지엄의 발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9 회까지의 개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 회 2008년 10월 31일 공주대학교
- 제 2 회 2009년 6월 12일·13일 나라교육대학
- 제 3 회 2010년 7월 2일 동경학예대학
- 제 3 회 2010년 12월 10일·11일 나라교육대학
- 제 4 회 2011년 10월 6일 공주대학교
- 제 5 회 2012년 12월 15일 나라교육대학
- 제 6 회 2013년 10월 5일 공주대학교
- 제 7 회 2014년 12월 6일 나라교육대학
- 제 8 회 2015년 11월 14일 공주대학교
- 제 9 회 2016년 12월 17일 데쓰카야마대학

연구의 측면에서는 백제와 관련이 없는 저이지만 인연이 있어 제 2 회때부터 이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공주에 갔을 때는 무령왕릉,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그리고 부어를 안내를 받아 돌아볼 수 있었고 매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는 세번째 방문」이라고 말한 경우도 있었지만 매번 새로운 배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공주로 이동해 심포지엄 후에는 해인사와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등을 방문하고 부산을 통해 귀국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주에 있으면서도 늘 가볼 기회가 없던 것이 박동진 선생님의 판소리 전수관입니다. 영화 「서편제」로 판소리를 알게된 저이지만 반드시 방문해 보고 싶은 곳입니다. 한일의 이해와 교류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되지만 본심포지엄 개최에 있어 진력해주신 모든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 1회 이래 예고집의 번역과 당일의 통역, 한일 사이에 서서 조정을 해 주시고 계신 김범수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慶州月城からみた百済と新羅、そして日本との瓦交流

梁 淙鉉 (ヤン・ジョンヒョン) 国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月城は、婆娑尼師今 22 年(パサニサグム、101 年)に築造され、新羅が滅亡する敬順王 9 年(935 年)まで宮城として常に新羅の中心にあった。そのため、日本強占支配期以来、地表収拾・発掘調査の過程で、数多くの瓦塼が出土し、それに伴う研究も継続的に行われてきた。なかでも新羅瓦の起源を究明しようとする試みは、韓国で瓦研究が始められてからこれまで絶えることなく続き、現在は月城から出土した高句麗系瓦と百済系瓦に絞られて論議されている。

この月城周辺には、皇龍寺、芬皇寺、興輪寺などの重要な寺院が集中している。その中でも、皇龍寺は九層木塔の建立のため、百済の阿非知の助けを受け、阿非知と一緒に新羅に渡った 200 名の百済職人が皇龍寺木塔に直接関与した事実は大いに注目に値する。阿非知は、責任者として全体的な管理を担ったと思われ、200 名の職人は、各自の分野でそれぞれの実務を担当したと考えられる。また、職人の中には、塔に使われる瓦や塼を製作する人も含まれていたことが推測される。

百済の瓦職人に関しては、阿非知の前にもすでに『日本書紀』588 年に日本の飛鳥寺を建設する百済職人に関する記録があり、彼らの中には瓦製作と関連した瓦博士が登場する。それだけでなく、実際に皇龍寺では百済の軍守里寺址で出土した蓮華紋瓦當と非常に類似した紋様の瓦當が出土されたことから、皇龍寺瓦は、遅くとも九層木塔が建設された善徳王 12 年(634 年)頃には百済とは確かな深い関わりがあったものと判断される。

さきに言及したように、朝鮮半島と日本の瓦との交流は、『日本書紀』に記録された飛鳥寺から始まっ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その後に建設される豊浦寺、船橋廢寺などを経て百済瓦の交流は繋がったものと思われる。しかし、三国が統一される 7 世紀後半には若干の変化が生じたようである。詳しく言えば、法隆寺の創建伽藍の若草伽藍は、一塔一金堂式である定林寺式伽藍配置であるが、670 年の火災によって西院伽藍として再建された際に西塔東金堂式の伽藍配置に変わった。伽藍配置の変化と共に瓦もまた百済から新羅の要素へと変わることになるが、この時点の変化に新羅が直接関わった可能性や新羅の要素が百済遺民の手によって伝えられた可能性も合わせて考慮したい。

すなわち、瓦交流に関連した百済職人と百済遺民、そして新羅職人の姿は、670 年の若草伽藍の全焼や 682 年の本薬師寺創建、そして 693 年の法隆寺仁王会の記録と共に、慶州の月城周辺で出土している新羅瓦を通して推察できると考えられる。

梁 淙鉉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경주 월성은 파사니사금 22년(婆娑尼師今, 101년)에 축조되어 신라가 멸망하는 경순왕 9년(敬順王, 935)까지 궁성으로서 언제나 신라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그러한 만큼 일제강점기 이래 지표수습·발굴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와전(瓦塼)이 출토되었고, 그에 따르는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신라기와의 기원(起源)을 밝히려는 노력은 한국에서 기와연구가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월성에서 출토된 고구려계기와(高句麗系瓦)와 백제계기와(百濟系瓦)로 압축되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월성 주변에는 황룡사(皇龍寺), 분황사(芬皇寺), 흥륜사(興輪寺) 등 주요 사원(寺院)이 밀집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황룡사는 9층목탑(九層木塔)을 건립하기 위하여 백제 아버지(阿非知)의 도움을 받았고, 아버지와 함께 신라로 건너온 200명의 백제장인이 황룡사 목탑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아버지는 책임자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맡았을 것이고, 200명의 장인은 각자의 분야에 맞는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장인들 사이에는 탑에 사용할 기와와 전돌을 제작하는 이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백제의 기와장인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전에 이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588년 일본 아스카데라(飛鳥寺)를 건립한 백제 장인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기와제작과 관련된 ‘와박사(瓦博士)’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황룡사에서는 백제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와 매우 유사한 문양의 수막새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황룡사 기와, 늦어도 9층목탑이 건립된 선덕왕 12년(善德王, 634년)경에는 분명하게 백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반도와 일본의 기와교류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아스카데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에 건립되는 토유라데라(豊浦寺), 후나하시하이(船橋廢寺) 등을 거치면서 백제 기와의 교류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삼국이 통일되는 7세기 후반에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듯하다. 자세하게 말하면 호류지(法隆寺)의 창건가람인 와카쿠사가람(若草伽藍)은 1탑1금당식인 정림사(定林寺)식가람배치를 이루다가 670년 화재로 인하여 사이인가람(西院伽藍)으로 재건되면서 서탑동금당식(西塔東金堂式)가람배치로 변화한다. 가람배치의 변화와 함께 기와 역시 백제에서 신라의 요소로 바뀌게 되는데, 이 시점의 변화에 신라가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신라의 요소가 백제유민의 손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고 싶다.

즉, 기와교류와 관련된 백제장인과 백제유민, 그리고 신라장인은 670년 와카쿠사가람의 전소(全燒), 682년 모토야쿠시지(本藥師寺) 창건, 693년 호류지 인왕회(仁王會) 기록과 함께 경주 월성 주변에서 출토되는 신라기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尹 龍燦 (ユン・ヨンヒョク) 国立公州大学校 歴史教育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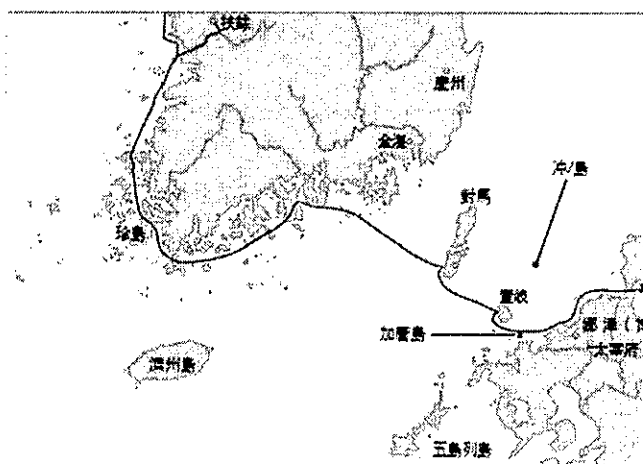
百済は中国や日本との活発な交流を通して発展した国家であった。それにも関わらず、とくに日本との往来に使われた航路についての具体的な論議は非常に少ないのが現状である。これまで百済と古代日本間の航路については、沖ノ島と五島列島を経由する路線がよく論議されてきた。福岡県宗像市に属する沖ノ島は、古代の祭祀遺跡として有名である。五島列島経由の海路は、莞島付近から大洋を渡り、済州海峡を通過して平戸へ、または五島列島を経由して九州沿岸を利用する海路である。二つの路線は、共に古代朝鮮半島との交流において一定の役割を持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

しかし、百済の古代日本との航路と関連して最も一般的な路線は、佐賀県唐津方面、加唐島近海や九州沿岸を利用する路線だったという見解が、『日本書紀』にある武寧王出生についての記録を主な根拠として具体的に展開されてきた。「琨支向倭 時至筑紫島 生斯麻王 自島還送 不至於京 産於島 故因名焉 今各羅海中有主島 王所産島 故百濟人号為主島」(『日本書紀』 16、武烈紀 4 年)「丙戌 朔 孕婦果如加須利君言 於筑紫各羅島産児 仍名此児曰島君 於是軍君即以一船 送島君於国 是為武寧王 百濟人 号此島曰 主島也」(『日本書紀』 14、雄略紀 5 年)などが主な関連資料である。

これまで武寧王の加唐島出生記録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から、この資料が持つ古代海路関連の資料的価値が見過ごされてきた。しかし、近年の文献の検討やさまざまな調査結果は、この資料の信憑性を高く評価する方向へと変わりつつある。その点で、この資料の古代日韓海路に関する資料としての価値は再評価されるべきである。

加唐島方面コースは、距離的に朝鮮半島と日本列島をつなぐ最短の海路であり、対馬、壱岐を飛び石島として利用していることで、最も安全な海路でもあるという意義を持つ。百済以前やその後にもこの路線が利用された多くの事例が確認できる。近年、加唐島近海に対する現地調査においても、この島が海路利用者にとって重要な航標となっていたことが認められている。

古代の韓日間の交流史において、当時利用された主な航路をより明白にすることは、交流史全体の整理においても非常に重要である。



古代 百濟-日本 航路와 加唐島

尹 龍燦 (公州大學校 歷史教育科)

백제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발전한 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과의 왕래에 사용되었던 뱃길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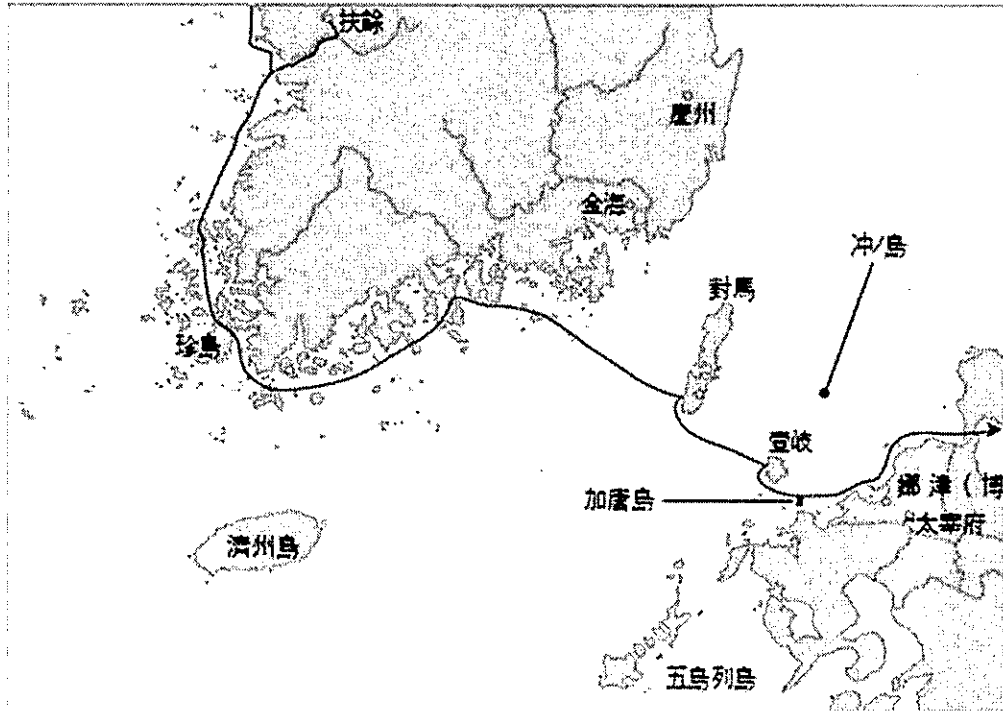
지금까지 백제와 고대일본 간의 항로에 대해서는 沖ノ島와 五島列島를 경유하는 노선도 자주 논의되어 왔다. 福岡縣 宗像市에 소재하는 沖ノ島는 고대의 제사유적으로 유명하다. 五島列島 경유의 해로는 甕島 부근에서 대양을 건너 제주 해협을 건너 平戶, 혹은 五島列島를 거쳐 九州 연안을 이용하는 해로이다. 두 노선 모두 고대 한반도와의 교류에 있어서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제의 고대 일본과의 항로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노선은 佐賀縣 唐津 방면, 加唐島 근해와 九州 연안을 이용하는 노선이었다는 견해를 ·日本書紀·의 武甕王 출생에 대한 기록을 주요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瓊支向倭 時至筑紫島 生斯麻王 自島還送 不至於京 産於島 故因名焉 今各羅海中有主島 王所産島 故百濟人號爲主島” (·日本書紀· 16, 武烈紀 4年) “丙戌 朔 孕婦果如加須利君言 於筑紫各羅島産兒 仍名此兒曰島君 於是軍君卽以一船 送島君於國 是爲武甕王 百濟人 號此島曰 主島也” (·日本書紀· 14, 雄略紀 5年) 등이 주요 관련 사료이다.

그동안 무령왕의 加唐島 출생 기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 자료가 갖고 있는 고대 海路 관련 자료적 가치가 간과되었다. 그러나 근년의 문헌 검토 및 여러 조사 결과는 점차 이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점에서 이 자료는 고대 한일간 해로에 대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한다.

加唐島 방면 코스는 거리상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잇는 가장 가까운 해로이며, 對馬, 壹岐를 징검다리 섬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해로상의 의미를 갖는다. 백제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 노선이 사용된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년 加唐島 근해에 대한 현

지 조사에서도 이 섬이 해로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航標가 되었으리라는 점이 인정된 바 있다. 고대 한일 간의 교류사에 있어서 당시 이용되었던 주 항로를 보다 명백히 하는 것은 교류사 전체의 정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周知のとおり、日本の古代山城には、大きく分けて朝鮮式山城と神籠石式山城がある。一般的な理解としては、『日本書紀』などの文献記録に築城や修築の記録がある山城を朝鮮式山城とし、記録のない山城を神籠石式山城とする。

このように朝鮮式山城と神籠石式山城は、考古学的な基準による区分ではなく、単に文献記録に登場するの否かによって区分されたもので、学術用語としてはあまり的確なものではない。ただ、両者が共に朝鮮半島との関連の下で出現したという事実については、おおむね意見の一致を見せている。

しかし、日本の古代山城が具体的に朝鮮半島とのどのような関係の中で出現したのか、また、どのようにして記録に残るものとそうでないものが生じたのか、同じく朝鮮半島との関連をもって出現したのにも関わらず、立地や築城法において両者に違いがある理由などについては、いまだ明確に解明できていない。

これらの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朝鮮半島の山城、その中でも百済山城との比較が有効な作業になると考えられる。朝鮮式山城が百済の遺民によって築造された事実は、すでに『日本書紀』に出ているためである。

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日本の朝鮮式山城と百済山城の比較に先立って、先に解決すべき課題がある。朝鮮式山城は築城年代が『日本書紀』に出ているが、現在残っている朝鮮式山城が持つ特徴が築城当時からのものなのか、それとも後代における修改築の過程で変形されたものなのかを確認する作業がそれである。

例えば、代表的な朝鮮式山城である大野城の場合、多くが土城であるが、北壁の一部は二重に築造されただけでなく、その部分が石城になっている。ある研究者は、このように城壁の一部が二重に築造されているのを根拠として、公州の公山城の東壁と比較したこともあった。公州の公山城もまた、東壁が二重で築造されているためである。

ところが、公山城の東壁は、同じ時期に二重で築造されたのではなく、築造時期がそれぞれ異なることが確認された。したがって、大野城の北壁もまた、異なる時期に築造された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言い換えれば、大野城の特徴を正確に理解するためには、この北壁の石城が初築当時のものか、それとも後代に改築されたものなのかを判断する作業が先行的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別の代表的な朝鮮式山城の一つである対馬の金田城の場合は、城門に門礎石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軸摺穴があり、礎金（門扉軸摺金具）も出土している。これらは門扉が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

しかし、このような門礎石は、これまで百済山城では発見されたことがない。とくに礎金（門扉軸摺金具）は新羅山城でのみ発見され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このような点から、金田城の門礎石は、百済的な要素でないことが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築城年代が明確な朝鮮式山城といっても、それが初築当時の姿そのままでない以上、朝鮮式山城の特徴を理解し、また記録にない神籠石式山城との比較のためには、まず、現在の朝鮮式山城が持つ特徴の中から初築当時のものと、後代の修改築によって変形されたものを分別する作業が必要である。

徐 程錫 (公州大學校)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古代山城은 크게 보아 朝鮮式山城과 神籠石式山城이 있다. 잘 아는 것처럼 ·日本書紀· 와 같은 문헌기록에 築城이나 修築의 기록이 보이는 산성을 朝鮮式山城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산성을 神籠石式山城이라고 한다.

이처럼 朝鮮式山城과 神籠石式山城은 고고학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헌기록에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어서 학술 용어로는 그다지 적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양자 모두 한반도와의 관련하에서 출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고대산성이 구체적으로 한반도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어떤 것은 기록에 남아 있고 어떤 것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지, 아울러 다 같이 한반도와의 관련하에서 출현하였음에도 왜 입지와 축성법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解明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산성, 그 중에서도 백제산성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朝鮮式山城이 백제 遺民에 의해 축조된 사실은 이미 ·日本書紀· 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朝鮮式山城과 百濟山城을 비교하기에 앞서 先決되어야 할 課題가 있다. 조선식산성은 축성 연대가 ·일본서기· 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식산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 축성 당시부터 갖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修改築 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예컨대 대표적인 조선식산성인 大野城의 경우, 대부분이 土城이지만 북벽 일부는 二重으로 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石城으로 되어 있다.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성벽의 일부가 이중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公州 公山城의 東壁과 비교하기도 한다. 公州 公山城 역시 東壁이 二重으로 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公山城의 동벽은 동일 시기에 二重으로 축조한 것이 아니라 축조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大野城의 북벽 역시 서로 다른 시기에 축조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大野城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北壁의 石城이 初築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後代에 改築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또 다른 대표적인 朝鮮式山城의 하나인 對馬 金田城의 경우, 城門에 門礎石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뜰에도 있고, 확쇠도 출토되었다. 門扉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門楚石은 현재까지 百濟山城에서는 발견된 바 없다. 특히 확실히는 新羅山城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金田城의 門楚石은 백제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축성 연대가 분명한 朝鮮式山城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初築 당시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이상 朝鮮式山城의 특징을 이해하고, 아울러 기록에 없는 神籠石式山城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朝鮮式山城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初築 당시의 것과 後代에 修改築에 의해 변형된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百済文化・日本文化の融合
—心の価値観を遺跡・瓦にみる—

帝塚山大学考古学研究所 特別研究員
甲斐弓子

『日本書紀』記載の如く、欽明天皇朝に百済の聖明王から仏教が公伝され、さらにその 50 年後やはり百済王によって寺院造営技術が伝えられている。寺院造営については技術は勿論のこと、莫大な費用と人員を必要とする。寺院造営技術導入に際し、わが国では国を左右する程の大きな戦いがあった。その戦いは土地や金品の略奪争いではない。政治・政策を含めたわが国の精神・信仰・思想を左右する国家的な戦いだった。「崇仏派」「廃仏派」の戦いである。その戦いを機に仏教を改めて受け入れることになり、寺院造営技術がわが国にもたらされた。

寺院造営の中心となる伽藍配置は、当時の仏への帰依や思想を形にしたものである。軒先を飾る瓦当も同じく仏への帰依やその想いを映し出したものと言えよう。寺院を護る人々によって信仰の心の表し方が異なり、伽藍配置や瓦当にもその姿が写し出されると考えるのも自然と言えよう。寺院の立地、伽藍配置、瓦当などに心が反映さ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が、その根本になる人々の精神性などは形に現れないだけに大きく、強いものがあったに違いない。

百済国際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すでに多くの方が瓦について語られたと聞く。そこで、百済地域と日本における遺跡や現存する寺院、人々の習慣、慣習などから形に見えない百済・日本共通の価値観を見いだせないだろうかと考えた。

最新の思想・文化を伝えた百済、そして、国の存亡を賭けてでも受け入れた仏教と仏教文化。伝える側と受け入れる側、双方において「心が震える」ほどの大切なものへに対する価値観の共通性がなければ文化が融合することは難しかろう。お互いの文化を尊重して理解し、認めあえたからこそ 6 世紀の大事業が成功したと考える。

今回は発表と言うよりこれからの課題として、百済・日本の寺院、瓦、習慣、慣習を通して形には無いが、百済と日本に共通する、認めあったであろうこと、理解しあえた地理的条件等も踏まえてその共有文化を考えるきっかけとしたい。

백제문화 · 일본문화의 융합

—마음의 가치관을 유적 · 기와에서 본다—

데쓰카야마대학 고고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가이 유리코 (甲斐弓子)

『일본서기』의 기재와 같이 흙명천황조에 백제의 성명왕으로부터 불교가 공적으로 전래되고 그 50년후에 역시 백제왕에 의해 사원 조영기술이 전해진다. 사원조영에 관한 기술은 당연히 막대한 비용과 인원을 필요로 한다. 사원조영 기술의 도입에 즈음해 일본에서는 나라를 좌우할 만한 큰 싸움이 있었다. 이것은 토지와 금품의 약탈 분쟁이 아니라 정치·정책을 포함한 일본의 정신·신앙·사상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싸움이였다. 「승불파」 「폐불파」의 싸움이 그것이다. 이 싸움을 계기로 불교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사원조영 기술이 일본에 전래되었다.

사원조영의 중심이 되는 가람 배치는 당시 부처에의 귀의와 사상을 형체화한 것이다. 처마끝을 장식하는 와당도 마찬가지로 부처에의 귀의와 그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원을 지키는 사람들에 따라 신앙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 가람 배치와 와당에도 그 양상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원의 입지, 가람 배치, 와당 등에 그 마음이 반영되었다고 보이지만 그 근본이 되는 사람들의 정신성등은 형태로서 발현되지 않은 만큼 크고 강한 무엇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백제국제심포지엄에 있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와에 대해 발표했다고 들었다. 이에 백제지역과 일본에 있는 유적과 현존하는 사원, 사람들의 습관, 관습 등으로부터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 백제와 일본의 공통적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최신 사상과 문화를 전한 백제, 또한 나라의 존망을 걸고 받아들였던 불교와 불교 문화. 전래하는 쪽과 수용하는 쪽, 서로에 있어서 「마음이 떨릴」 정도로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관의 공통성이 없었으면 문화의 융합은 어려웠을 것이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 상호 인정할 수 있었기에 6세기의 대사업은 성공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발표라기보다는 향후의 과제로서 백제·일본의 사원, 기와, 습관, 관습을 통해 형태는 없지만 백제와 일본에 공통되는 서로 인정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을 서로가 이해한 지리적 조건까지 참고로 해 이러한 공유문화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1、文化財の三次元計測

文化財は有限であり、また我々人類の歴史文化を知る上で貴重な資料であることから、それらを保存・継承することは重要である。文化財を保存するためには、資料の情報を記録することがまず必要である。記録方法として、従来は図面や写真などの二次元情報での記録が主に取りられてきた。しかし近年、コンピュータ技術の発展により、三次元計測による文化財の記録が普及し始めており、文化財の記録情報を三次元的に残すことが可能となっている。

本研究で用いる三次元計測機器は、Artec社製のArtec Eva 3D スキャナーである。このスキャナーは、高速で計測対象物の三次元情報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同時に対象物のテクスチャ情報も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計測はテクスチャライト方式という光源を用いた方法で行うため、計測対象物に非接触で計測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って、文化財の計測に有効であると言える。

2、本研究の概要

本研究では、日本との関係性の深い百濟期の瓦を三次元計測し、多様な軒丸瓦の3Dデータを収集し、主にそれらの文様の3D形状データを観察し、瓦研究に有力な情報が得られるかを検討する。

3、計測資料

本研究で計測した瓦の資料は、帝塚山大学附属博物館所蔵の百濟期の瓦である。金剛寺、佳増里寺、龍井里寺、東南里寺などの6世紀前半から7世紀前半にかけて建立された寺院の瓦を数点計測した。

4、瓦の観察結果と考察

本研究で得られた瓦の3Dデータは、文様の起伏を観察するのに優れていると感じた。これらの起伏を観察してみると、ある程度年代の近い百濟の瓦においても多様な種類が存在することが分かった。また、瓦の観察に3Dデータを利用する利点として、瓦の三次元情報を見比べることが容易にできる点が挙げられる。これは、瓦の文様を比較するうえで有効であると言える。

3 D 데이터를 이용한 백제기 기와 관찰

나라교육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석사과정
나카야 나오 (中屋 菜緒)

1. 문화재의 3 차원 계측

문화재는 유한하며 또한 우리 인류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존·계승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기록 방법으로는 종래에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2 차원 정보에의 기록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해 3 차원 계측에 의한 문화재 기록이 보급되기 시작해 문화재의 기록 정보를 3 차원적으로 남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연구에서 사용한 3 차원 계측 기기는, Artec 사의 Artec Eva 3 D 스캐너이다. 이 스캐너는 고속으로 계측 대상물의 3 차원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상물의 텍스처 정보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계측이 텍스처 방식이라는 광원을 이용한 방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계측 대상물을 비접촉으로 계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의 계측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2. 본연구의 개요

본연구에서는 일본과의 관련성이 깊은 백제기 기와를 3 차원 계측을 통해 다양한 현환와의 3 D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로 이러한 문양의 3 D 형상 데이터를 관찰해 기와 연구에 있어 유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3. 계측 자료

본연구에서 계측한 기와 자료는 데쓰카야마대학 부속박물관이 소장한 백제기 기와이다. 금강사, 가종리사, 용정리사, 동남리사 등 6 세기 전반에서 7 세기 전반에 걸쳐 건립된 사원의 기와를 수 점 계측했다.

4. 기와의 관찰 결과와 고찰

본연구에서 얻어진 기와의 3 D 데이터는 문양의 기복을 관찰하는데 있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복을 관찰함으로써 어느정도 연대가 가까운 백제 기와들 사이에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와의 관찰에 3 D 데이터를 이용하는 잇점으로서 기와의 3 차원 정보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수있다. 이것은 기와의 문양을 비교하는데 있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武蔵国分寺の朝鮮半島系瓦

東京学芸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修士課程 矢内雅之

古代武蔵国には高麗郡と新羅郡という、朝鮮半島の国の名を冠した2つの郡が存在した。『続日本紀』によれば高麗郡の設置は靈龜2年(716)、新羅郡の設置は天平宝字2年(758)とある。これらの他にも文献史料に多くの渡来人移住記事がみられることから、武蔵国は渡来人の居住地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稲村・柴田 1931 など)。また、武蔵国分寺跡でも高句麗系・新羅系瓦当文様をもつ古瓦の存在が知られ、こうした渡来人居住記事との関連が指摘された(太田 1938、石田 1948、石村 1960、宇野 1994)。これらの瓦は後の発掘調査や瓦窯跡の調査成果から、高句麗系瓦の多くが9世紀代、統一新羅系軒丸瓦が国分寺創建期(8世紀中葉)の所産とされる(有吉 1995)。

一方、北武蔵(現在の埼玉県域)に分布する古代寺院にも朝鮮半島系瓦が認められる。これらの中では、寺谷廃寺出土の百濟直系瓦が最も古く、6世紀末～7世紀前半に位置づけられるが(亀田 1999 など)、ここでは、8世紀前半ないし中葉以降、武蔵国内諸寺院(精進場遺跡、女影廃寺、寺内廃寺など)に高句麗系瓦が出現し始めること、そして9世紀代には武蔵国分寺で高句麗系瓦が増加することに注意したい。

『続日本後紀』によれば承和12年(845)、武蔵国分寺七重塔の再建が始まり、これに伴い埼玉県入間市の東金子窯跡群で瓦が作られる(坂詰 1971・1984 など)。しかし国分寺創建完了～塔再建、あるいはそれ以降の時期にいたるまでの間に、国分寺瓦の生産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ったのか、完全には解明されていない。武蔵国分寺の高句麗系瓦の多くがこの時期の瓦生産の様相に深く関わってくるものと思われる。さらに、当期の瓦には、瓦当裏面に縄目叩きをもつものが多々認められるが、こうした瓦当裏面の叩きは古新羅の瓦に認められる特徴であるという(亀田 2009 など)。つまり、当期の瓦は瓦当文様こそ高句麗系が主流であるが、その製作には新羅系工人が関与していた可能性が生じてきた。本報告では、これら国分寺再建期の瓦にみられる朝鮮半島系瓦の影響から、当期の瓦生産を考察していきたい。

(参考文献) 有吉重蔵 1998「武蔵国分寺」関東古瓦研究会『聖武天皇と国分寺—在地から見た関東国分寺の造営—』雄山閣 pp.32-56、石田茂作 1948「古瓦より見た日鮮文化の交渉」『伽藍論攷—仏教考古学の研究—』養徳社 pp.273-302、石村喜英 1960『武蔵国分寺の研究』明善堂書店、稲村坦元・柴田常恵 1931『埼玉縣史』第2巻 埼玉県、宇野信四郎 1994「武蔵国分寺塔跡出土の古瓦」田熊信之・天野茂(編)『宇野信四郎蒐集古瓦集成』東京堂出版 pp.307-359、太田静六 1938「武蔵国分寺塔婆考」『史蹟名勝天然紀念物』第13集第3号 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協会 pp.35-49、亀田修一 1999「武蔵の朝鮮系瓦と渡来人」『瓦衣千年』森郁夫先生還暦記念論文集 森郁夫先生還暦記念論文集刊行会 pp.371-401、亀田修一 2009「朝鮮半島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東アジア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と伝播』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研究成果報告書 pp.122-156、坂詰秀一(編) 1971『武蔵新久窯跡』雄山閣出版、坂詰秀一(編) 1984『武蔵八坂前窯跡』雄山閣出版

고대 무사시국에는 고려군과 신라군이라는 한반도의 나라 이름이 붙은 두 개의 군이 존재했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고려군의 설치는 영귀 2년(716), 신라군의 설치는 천평보자 2년(758)으로 되어있다. 이들 외에도 문헌사료에 많은 도래인들의 이주 기사가 보여지는 점에서 무사시국은 도래인의 거주지로서 인식되고 있었다(이나무라·시바타 1931 등). 또한 무사시 국분사 유적에서도 고구려계·신라계 와당문양을 가진 고기와의 존재가 알려지는데 이러한 도래인 거주 기사와의 관련이 지적된다(오오타 1938, 이시다 1948, 이시무라 1960, 우노 1994). 이 기와들은 후의 발굴 조사와 와요적 조사 성과로부터 고구려계 기와의 대부분은 9세기대, 통일신라계 현환와는 국분사 창건기(8세기 중엽)의 소산으로 판단된다(아리요시 1995).

한편 북무사시(현재의 사이타마현 지역)에 분포하는 고대 사원에도 한반도계 기와가 인정된다. 이들 가운데에는 사곡폐사 출토의 백제직계 기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에 위치하는데(가메다 1999 등) 여기서는 8세기 전반 혹은 중엽 이후 무사시국 내의 여러 사원(정진장 유적, 여형폐사, 사내폐사 등)에 고구려계 기와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점과 9세기대에는 무사시 국분사에서 고구려계 기와가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속일본후기』에 의하면 승화 12년(845), 무사시 국분사 칠층탑 재건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사이타마현 이루마시의 히가시카네코 요적군에서 기와가 만들어진다(사카즈메 1971·1984 등). 그러나 국분사 창건 완료~탑 재건, 또는 그 이후의 시기에 이르는 동안 국분사 기와의 생산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는 완전히 해명되어 있지는 않다. 무사시 국분사의 고구려계 기와의 대부분이 이 시기의 기와 생산의 양상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의 기와에는 와당 뒷면에 새끼줄 문양을 새겨넣은 것이 다수 인정되는데 이처럼 와당 뒷면에 넣은 문양은 고신라의 기와에서 인정되는 특징이라 한다(가메다 2009 등). 결국 당시 기와의 와당 문양은 고구려계가 주류였지만 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신라계 기능공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본 보고에서는 이들 국분사 재건기의 기와에서 보여지는 한반도계 기와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당시의 기와 생산에 관해 고찰해 본다.

(참고 문헌)

有吉重蔵 1998 「武蔵国分寺」 関東古瓦研究会 『聖武天皇과 国分寺—在地에서 본 関東 国分寺의 造営—』 雄山閣 pp.32-56. 石田茂作 1948 「古瓦에서 본 日鮮文化의 交渉」 『伽藍論攷—仏教考古学의 研究—』 養徳社 pp.273-302. 石村喜英 1960 『武蔵国分寺의 研究』 明善堂書店. 稻村坦元·柴田常恵 1931 『埼玉縣史』 第 2 卷 埼玉県. 宇野信四郎 1994 「武蔵国分寺塔跡出土의 古瓦」 田熊信之·天野茂(編) 『宇野信四郎蒐集古瓦集成』 東京堂出版 pp.307-359. 太田静六 1938 「武蔵国分寺塔婆考」 『史蹟名勝天然紀念物』 第 13 集 第 3 号 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協會 pp.35-49. 亀田修一 1999 「武蔵의 朝鮮系瓦와 渡来人」 『瓦衣千年』 森郁夫先生還曆記念論文集 森郁夫先生還曆記念論文集刊行会 pp.371-401. 亀田修一 2009 「朝鮮半島에 있어서의 造瓦技術의 變遷」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造瓦技術의 變遷과 伝播』 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 A) 研究成果報告書 pp.122-156. 坂詰秀一(編) 1971 『武蔵新久窰跡』 雄山閣出版. 坂詰秀一(編) 1984 『武蔵八坂前窰跡』 雄山閣出版

日本の古墳における十二支像は、奈良県明日香村キトラ古墳壁画の十二支像と、奈良県奈良市那富山墓の線刻十二支像(隼人)のみが現在確認されている。東アジアの古墳の十二支像の系譜をたどることで、日本における古墳と百済及び朝鮮半島との関係を考える。

古墳における十二支像の出現時期についてであるが、古墳壁画に描かれた十二支像として現在確認されている最も古い作例は中国北齊時代の婁叡墓(中国山西省太原市)墓室四壁の上欄部分の十二支像である。この十二支像は写実的な動物の姿をしており、中国における古墳の十二支像の多くはこの写実的な動物の姿を踏襲している。キトラ古墳や那富山墓に見られる獣頭人身の十二支像は隋時代に出現する。この獣面人身十二支像は古墳壁画に描かれたものではなく、古墳の副葬品の俑として作られたものである。この十二支像の特徴としては、着衣の坐像である点である。唐時代後半になるとこの俑の十二支像は立像となる。いずれも着衣の文官の様相をしており、手に持つのは笏または拱手する姿である。日本のキトラ古墳に描かれている十二支像は着衣の文官の姿をしているため、この着衣の十二支像に影響を受け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る。

しかし唐の十二支像とキトラ古墳の十二支像には大きな違いがある。笏を持物としたり拱手するのではなく、手に武器を持つ点である。このキトラ古墳の手に武器を持つ姿は、統一新羅時代の陵墓の十二支像に源流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朝鮮半島の十二支像は統一新羅時代に入り陵墓の周辺にめぐらされた石像やレリーフとして現れた。これらの十二支像も唐からの影響を指摘されているが、持物の種類が武器や宝珠などと唐のものよりも多く、時代が下ると甲冑を身に付け、文官ではなく武官の姿を模した姿に変化する。また、宝珠を持つ点など仏教の影響を受けていることが考えられる。キトラ古墳の十二支像と類似する十二支像としては、新羅の金庾信墓の十二支像との類似性が指摘されている。キトラ古墳壁画は四神や人物群像との関係から唐との類似性が多く指摘されるが、武器を手にする十二支像に焦点を当てることで、日本と朝鮮半島の古墳との関係性が浮かび上がる。

百済武寧王陵墓誌銘からは十二支を漢字で記したものが出土している。壁画や彫刻としての十二支は見つかっていないが、百済でも十二支が重要視されていたことが感じられる。韓国国立中央博物館・慶州博物館等に分蔵される蠟石製十二支像は、現存する新羅十二支像中の古作で、統一新羅初期(7世紀後半)に遡る可能性が李鎮栄氏により指摘されている。新羅ではこれ以前に蠟石の使用が認められず、いっぽう百済には蠟石製仏像の伝統があることから、新羅十二支像の成立に百済からの影響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

(参考文献) 山本忠尚著『高松塚・キトラ古墳の謎』2010-10, 吉川弘文館、来村多加史著『高松塚とキトラ —古墳壁画の謎—』2008-01, 講談社、李鎮栄著「統一新羅時代の十二神将—韓国と日本の十二神将像の比較研究の一環として—」『龍谷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34』pp69-86, 2012-12-25, 龍谷大学

일본 고분의 십이지상은 나라현 아스카무라 기토라고분 벽화의 십이지상과 나라현 나라시 나호야마묘(那富山墓)의 선각십이지상 (하야토)만이 현재 확인되고 있다. 동아시아 고분의 십이지상 계보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고분과 백제 및 한반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고분에서의 십이지상 출현 시기에 관해서는 고분 벽화에 그려진 십이지상으로서 현재 확인되고 있는 가장 오래 작품례로 중국 북제시대의 루예묘 (중국 산서성 태원시) 묘실 사면벽 상단 부분의 십이지상이 있다. 이 십이지상은 사실적인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국고분 십이지상의 대부분이 이 사실적인 동물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기토라고분이나 나호야마묘에서 볼수 있는 수면인신 십이지상은 수나라때에 출현한다. 이 수면인신 십이지상은 고분 벽화에 그려진것이 아니라 고분 부장품의 용(甬:목우)으로서 만들어진것이다. 이 십이지상의 특징은 착의 좌상이라는 점이다. 당나라 후반이 되면 이 용의 십이지상은 입상이 된다. 어느것이나 착의 문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손에 활(笏)을 들거나 공수(拱手)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기토라고분에 그려진 십이지상은 착의 문관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착의 십이지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의 십이지상과 기토라고분의 십이지상은 큰 차이가 있다. 활을 갖고있거나 공수하는것이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토라고분의 손에 무기를 든 모습은 통일신라 시대의 능묘 십이지상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의 십이지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 능묘 주변을 둘러싼 석상이나 릴리프 형태로 등장한다. 이러한 십이지상도 당으로부터의 영향을 지적받고 있지만 소지품의 종류가 무기나 보주 등 당의 것보다 많고 시대가 흐르면서 투구와 갑옷을 몸에 걸친 문관이 아닌 무관의 모습을 형상화한 형태로 변화한다. 또한 보주를 갖는 점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것을 추정할 수 있다. 기토라고분의 십이지상과 유사한 십이지상으로서 신라의 김유신묘 십이지상과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 기토라고분 벽화는 4신과 인물 군상들과의 관계로부터 당과의 유사성이 많이 지적되는데 무기를 손에 든 십이지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일본과 한반도 고분과의 관계성이 부상한다.

백제 무령왕릉 묘지명에서는 십이지를 한자로 적은것이 출토되고 있다. 벽화나 조각으로 된 십이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백제에서도 십이지가 중시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등에 분장되어 있는 남석제 십이지상은 현존하는 신라 십이지상중에서도 오래된 작품으로 통일신라 초기(7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이진영씨에 의해 지적되었다. 신라에서는 이 이전의 남석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백제에서는 남석제 불상의 전통이 있던 점에서 신라 십이지상 성립에 있어서 백제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山本忠尚著『高松塚・기토라고古墳의 수수께끼』2010-10, 吉川弘文館. 来村多加史著『高松塚과 기토라고—古墳壁画의 수수께끼—』2008-01, 講談社. 李鎮榮著「統一新羅時代の 十二神将—韓国과 日本 十二神将像의 比較研究의 일환 으로서—」『龍谷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34』pp69-86, 2012-12-25, 龍谷大学

サルポ(鋤)は平らな方形の身部に幅の狭い円筒形の釜部が付いた形のもので、朝鮮の在来の農器具に関する調査により農具の一種として知られている。鉄製農具を通して古代の農業生産力や農業技術の発展過程を究明しようとする研究の進展と共にその重要性は新たに浮き彫りになった。

百済地域で出土する鋤は、金銅冠、金銅飾履などの華麗な遺物と一緒に出土されているため、農業生産力の発展だけでなく政治的な側面の象徴性も把握できる有効な資料になっている。しかし、鋤自体に対する形式学的研究は不十分であるのが実情で、多くが特定時期に偏るという問題が露呈している。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問題の解決のために、百済地域で出土した鋤の類型や形式を確認し、形態的な側面での変化の様子を通じて鋤の編年を調べることとする。

まず、百済地域から出土した鋤は、漢江や錦江、蟾津江などの河川を中心とした地域と、西海岸・南海岸を中心とした地域から出土している。それは百済領域の全体に均一に分布するのではなく、特定地域、中でも錦江を水系とする地域において集中的に出土するのが特徴である。

次は、収集した資料をもとに鋤の類型と形式について考察したい。鋤は柄部の材質によって鉄柄鋤と木柄鋤に区分され、身部の形によって方形と梯形、半円形の形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木柄鋤は、身部の規格が次第に小さくなる一方で釜部の比率は長くなる変化が確認されたが、これは鋤の機能変化と関連があるものと判断される。このような変化に基づいて、四つの分期区分が可能となる。

1 分期(4世紀後半)は、鋤の出現期で、洛東江の中下流である金海地域を中心に方形の鋤が初めて出現する。2 四半期(5世紀中盤)は、鋤の形成期で、方形の他に梯形や半円形の鋤も出現する。地域的には、金海、陝川、昌原、蔚山、義城はもちろん、百済領域である全羅道の任実地域においても確認されている。3 四半期(5世紀後半)は、鋤の発展期で、慶尚道の大部分の地域で確認され、百済地域においても、ソウルや忠清道地域まで出土範囲が拡大し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鋤の技能の変化が始まり、儀器性の強い鉄柄鋤も出現している。第4 四半期(6世紀中盤)は、鋤の後退期で、木柄鋤は最も小さい身部の規格において釜部の比率が最も大きい1:3のものが確認され、鉄柄鋤の数も増加して実用具としての機能を完全に失っている。出土地域は、再び狭くなり、一部の地域に限定して確認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変化の様子に基づくと、百済地域から出土する鋤は2分期において初めて出現し、3分期から普及するものであるため、百済地域で水田農業が最も活発化した時期は5世紀後半以降になると判断した。この時期に注目すべき記事として、『三国史記』の武寧王と関連した「下令完固堤防驅内外遊食者帰農」がある。このことから考えると、鋤の普及化は、武寧王の水利施設拡充や遊食者の帰農政策と深い関連があることが分かる。内外の遊食者の中には、当時、百済社会へ流入した新羅人や伽耶人も含まれていたと推測され、彼らと共に鋤も流入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百濟 살포에 對한 考察

李 相元 (京都大學 研究生)

살포는 편평한 方形의 身部에 폭이 좁은 圓筒形의 鍬部가 달린 형태로, 朝鮮의 재래 농기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農器具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철제 농기구를 통해 고대 농업 생산력 및 농업기술 발전과정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백제 지역에서 출토되는 살포는 金銅冠, 金銅飾履 등 화려한 유물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농업 생산력의 발전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상징성도 파악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살포 자체에 대한 형식학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 특정시기로 偏在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살포의 유형과 형식을 확인하여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상을 통해 살포의 편년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살포는 한강과 금강, 섬진강 등의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었다. 이는 백제의 영역 내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특히 금강을 수계로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살포의 유형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살포는 柄部の 材質에 따라 鐵柄살포와 木柄살포로 구분되며, 身部の 형태에 따라 方形과 梯形, 半圓形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木柄살포는 身部の 規格이 점차 작아지면서 鍬部の 비율이 길어지는 변화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살포의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4개의 分期로 구분할 수 있다.

1분기(4세기 후반)는 살포의 출현기로, 낙동강 중하류의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방형의 살포가 처음 출현한다. 2분기(5세기 중반)는 살포의 형성기로, 방형 외에 梯形과 半圓形의 살포도 출현하며, 지역적으로 金海, 陝川, 昌原, 蔚山, 義城은 물론 백제 영역인 전라도의 任實地域에서 확인된다. 3분기(5세기 후반)는 살포의 발전기로,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되고, 백제 지역에서도 서울 및 충청도 지역으로 출토 범위가 넓어져 확인된다. 살포의 기능 변화가 시작되어 儀器性이 강한 鐵柄살포도 출현한다. 제4분기(6세기 중반)는 살포의 퇴화기로, 木柄살포는 가장 작은 身部の 규격에서 鍬部の 비율이 가장 큰 1:3이 확인되며, 鐵柄살포의 수도 증가하여 실용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출토 지역은 다시 좁아져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토대로 백제 지역에서 출토되는 살포는 2분기에 처음 출현하여 3분기부터 보급화 되는 것으로, 백제지역에서 水田農業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5세기후반 이후부터라고 파악하였다. 이 시기 주목해 볼 수 있는 『國史記』의 기사가 武寧王과 관련된 「下令完固堤防驅内外遊食者歸農」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살포의 보급화는 武寧王의 水利施設 擴充과 遊食者의 歸農政策과 관련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내외의 遊食者 중에는 당시 백제 사회로 유입된 新羅人과 伽耶人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들과 함께 살포도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大和片岡地域南部における百済文化の様相

香芝市教育委員会生涯学習課 文化財係学芸員 西垣 遼

大和片岡地域は奈良盆地の西縁部に位置する。河内から大和へ至る玄関口にあたり、大和川を北限とした葛下川流域を中心とした地域を示す。付近では、古代の牧があったことが推測されており、下田東遺跡からは国内最古級の5世紀中頃に遡る木製の鞍が出土し、5世紀後半頃と考えられる下田東1号墳からは、馬形埴輪と馬牽きの人物埴輪などの形象埴輪が出土している。

7世紀代の片岡は、飛鳥や斑鳩とならぶ古代寺院の集中する地域で、大和のなかでも比較的早くに寺院が造営された地域である。寺院には、放光寺（片岡王寺）、西安寺、尼寺南麿寺、尼寺北麿寺が存在する。とりわけ、片岡地域の南部に位置する尼寺麿寺の付近には、平野窯跡群、平野古墳群などが確認され、6・7世紀の窯跡、古墳、寺院が近接した位置に複数造営される数少ない地域である。これらの造営主体については、斑鳩に進出していた上宮王家の一族や敏達王家の一族との関わりを主張する意見が強い。

片岡地域の開発に関する記録は『日本書紀』推古15年（607年）是年冬条において肩岡池の開発がみられる。推古朝における池開発が屯倉設置に関わるものであり、これ以降この地域の開発が王家や王族によっておこなわ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これ以前の開発記録はなく、7世紀代における当地の開発記録も希薄であるが、8世紀になると長屋王邸出土木簡から敏達天皇系の一族である長屋王とのつながりがみえてくる。

このような流れの中で、7世紀代の片岡地域南部を見てみると、奈良盆地の中でも比較的早くに操業される平野窯跡群や百済の墓制との関係が認められる平野2号墳や平野塚穴山古墳、日本最大級の塔心礎をもつ尼寺北麿寺が造営される。特に、平野塚穴山古墳は百済陵山里古墳群の東下塚古墳との関連性が指摘され、渡来系の技術者との関わりが強く窺える。一方、尼寺北麿寺には、塔心礎の四方に添柱を伴う柱座の形態が、法隆寺若草伽藍と類似することから、法隆寺系の技術者の関与が想定できるが、片岡地域北部の放光寺（片岡王寺）や西安寺の瓦に認められるような渡来系の要素があまり認められな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このことは、片岡地域南部の領域が渡来人によって直接開発がおこなわれた訳ではなく、むしろ渡来系の技術者を享受できる勢力による開発があった結果、当地に窯跡や古墳に認められるような渡来人の足跡が確認できると考えられる。

発表では、7世紀代の片岡地域南部の開発史を中心に整理することによって、大和片岡地域南部と百済とのつながりを理解する一助としたい。

[百済と日本の瓦をデザイン化したものです]

